

기 고

김 용 호 여수소방서장



안전한 겨울나기는 이렇게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과 빈번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화기사용 및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한다.

또한 여름과 가을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다.

또한, 그간 화재안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상반기 화재분야 도민안전 체감도가 하락하고,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난다는 인식으로 인해 화재로 인한 주민불안이 감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급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를 통한 도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도민이 참여·공감하는 화재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이 많은 위험지역·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자발적인 협조없이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안전한 겨울나기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원인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 점유율이 60.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소화기, 단독경보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하여 평소 사용법을 숙

지해 두어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가정, 재래시장, 직장 등에서 겨울철 사용빈도가 많은 전기히터, 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과 전기·가스 등 화기취급시설 사용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주변에 화재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가, 공동주택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나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참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듯, 겨울철은 화재발생이 많은 시기인 만큼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 발심동체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나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社 說

미세먼지 대비 강화해야

광주지역 미세먼지 데이터를 측정·분석해 경보를 발령하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효과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내 전담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질 측정소 관리·운영·데이터 수집·분석·경보발령과 해제 등 미세먼지 관련 업무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환경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조사과 내 과장을 제외한 연구사 6명 가운데 미세먼지 등 대기조사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연구사 2명이 시 전역 대기측정소 9곳의 관리·운영하며 측정된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의 발령 해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대기조사 전문가인 연구사 1명은 신입부서인 환경조사과 내 서무 업무까지 맡으면서 다른 미세먼지 전담 연구사 2명의 업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환경조사과에 함께 근무하는 대기·수질조사 연구사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의 업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조직개편 때 대기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기후대기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는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미세먼지 등 대기 관련 별도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경보 발령을 위해 연구사 확충과 규모를 확대한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겨울철 산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자

날이 추워지면 야외활동도 줄게 마련이지만,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도 오히려 적당히 쌀쌀한 요즘 같은 때가 산행의 적기라고 말한다.

이러할때 대부분 등산객들은 들뜬 마음으로 산행을 한다. 하지만 아름다운 산에도 위험은 상시 존재하고 있다.

산행시 사고발생 특정요인을 보자면 등정본능을 일으키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사고 발생원인은 티바상·골절, 신체이상, 실족, 방향감각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자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산행을 자주하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이 느슨해진 경우에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을 하기전 꼭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며 2인 이상 등산을 하여야 한다.

둘째, 해가 짧은 것을 감안하여 하산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셋째, 배낭에 당분을 섭취할수 있는 음식(초콜릿,사탕)을 챙기며 따뜻한 물을 가져가라.

넷째, 등산가기전 그곳을 날씨를 꼼꼼히 살펴보고 체온유지와 미끄러짐 방지용 옷과 신발 등을 가져가라.

다섯째, 도움을 구할수 있는 호루라기와 비상식량을 가져가라.

또한 사고가 났더라도 차후 대응방법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첫째, 산행중에 신체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한다.

둘째, 등산복에 위치한 구급함을 사용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셋째,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구조대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숙지한다면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한편 즐겁고 건강을 유지할수 있는 산행을 하게 될것이다.

정찬영 / 화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생활화 해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각 가정에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로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 부족으로 화재에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늘고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늦가을부터 겨울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일러 과열, 가연물 근접 방지 등으로 대부분이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리상의 부주의를 개선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첫째,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둘째, 연통은 처마 및 지붕으로부터 60cm이상 떨어지도록 높게 연장해 설치한 후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단열관을 설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첫째, 화목보일러 주

변 2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며 둘째, 온도 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과열에 의해 복사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 투입한 후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 놓아야 한다.

셋째, 연통 안에 재 또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또 태우고 난 재는 그대로 버리거나 방지하면 비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을 뿌리거나 흙을 덮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확인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훌륭한 난방기구가 된다. 잡목이나 폐목이 주변에 많이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난방기구가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평생 일궈온 터전을 하루만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은 필수다. 지금이 바로 사전 점검에 적기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周發殷湯

周發殷湯

▷ 뜻: 주발(周發)은 무왕(武王)의 이름이고, 은탕(殷湯)은 왕(王)의 칭호(稱號)임.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 our positions?).